

세상이 부르는 이름, 끝까지 지킬 첫 마음

백제 1 · 왕이 되고 싶어! · 찬양 및 성경암송대회 — 10월 세 번의 토요일 아침,
일터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무엇으로 서는지 다시 묻게 한
말씀입니다.

10/10 백제 1 — 세상이 붙여 준 이름, 그리스도인

10/17 왕이 되고 싶어! — 성공 뒤의 초심

10/24 말씀과 찬송으로 승리하는 정직 경영

한눈에 10월 말씀의 흐름

10/3(토) 개천절 휴회 · 10/31(토) 조찬포럼 쉽 — 오후 5:30 가을 저녁 모임(친교·독후감 나눔·
저녁식사, 장유 중국요리 상하이)

2026.10.10 · 서재찬 박사 (반석인더스트리즈 대표)

백제 1 (百濟) — 세상이 붙여 준 이름,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21-26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 사도행전 11:26

첫째 자칭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붙여 준 별칭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백제라는 이름의 무게

아스카 문화에 남은 백제의 불교·건축·기술, 그리고 “백제 것이 아니면 하찮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구다라나이’. 한 나라의 이름도 다른 이들이 붙여 준 평가로 오래 남습니다.

셋째 섭리 = 말씀 + 시간과 기회 + 방향

한국전쟁의 벙크로프트 중위, 미국 기업인 잭 버크, 그리고 1992년 시카고에서 성경과 전화번호부를 들고 길을 찾던 강사의 간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Providence ← provide).

💡 그리스도인은 자칭이 아니라 타칭입니다. 내 일터가 나를 그렇게 부르게 하십시오.

묵상과 나눔

1. 우리 직원과 거래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 이번 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소리를 들을 행동 하나는 무엇입니까?
3.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님, 제 일터가 저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하소서. 아멘.

2026.10.17 · 최무열 목사 (전 부산장신대 총장)

왕이 되고 싶어! — 성공 뒤의 초심

사사기 8:22-27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 사사기 8:23

첫째 가장 작은 자의 첫 마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삿 6:15)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은 철저한 겸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입과 손의 괴리

입으로는 왕위를 거절했지만, 손으로는 금 1,700세겔과 왕의 상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든 오브라의 에봇은 온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삿 8:27).

셋째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내 아버지는 왕이다)’에 감춰진 속마음. 성공이 쌓일수록 초심을 지키기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 앞에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약 4:14).

💡 왕의 자리만 사양하고 왕의 것을 다 취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 묵상과 나눔

1. 일이 잘될 때 내가 은밀히 쌓고 있는 ‘나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2. 내 입의 고백과 내 손의 결정이 어긋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3. 이번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경영 결정 하나는 무엇입니까?

🙏 주님, 성공 뒤에도 첫 마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광야의 일터에서 말씀과 찬송으로 승리하는 정직 경영

골로새서 3:16-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골로새서 3:16

첫째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거하는 말씀

잠깐 대접하고 배웅하는 손님처럼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매일 한 식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상의하는 가족처럼 모입니다. 반주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외운 한 구절이 그 시작입니다.

둘째 위기 순간의 ‘영적 반사신경’

거래처 단절, 편법 계약의 유혹,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 외워 둔 말씀(“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5)이 브레이크가 되어 정직한 길을 고르게 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송처럼, 어둠 속 찬송이 동료를 일으킵니다.

셋째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의 태도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골 3:17).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한 말, 손실을 감수하는 약속 이행, 외국인 근로자와 약한 협력업체에 대한 존엄한 대우가 정직 경영의 실천입니다.

 말씀이 통장 잔고를 바로 늘려 주지는 않지만, 두려움과 탐욕 앞에서 바른길을 고르게 합니다.

묵상과 나눔

1. 지금 내 마음에 ‘가족’처럼 머무는 말씀 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2. 이번 달 위기 순간에 나를 멈춰 세운 말씀이 있었습니까?
3. 월요일 일터에서 바꿀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과 일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 10월 말씀의 흐름 — 이름 · 초심 · 말씀

날짜	질문	이번 달의 답
10/10	세상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삶으로 증명된 이름, 그리스도인
10/17	성공 뒤에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 하나님만 왕으로
10/24	무엇이 나를 바른길에 세우는가?	내 안에 가족처럼 거하는 말씀과 찬송

그리고 11월은 비즈니스 감사학교 2강 「실적보다 중요한 CEO의 존엄 — 존재의 감사」(11/7)로 이어집니다. [미리 보기](#) ➞

🤝 이 말씀을 직접 들으러 오십시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50분
(주)반석인더스트리즈 세미나실 · 말씀 · 조찬 · 교제
처음 오시는 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참석 문의 · 임명식 총무 010-3338-3332